

# 논술실록 論述實錄

: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발문 변형에 대한 모든 오해와 해결책  
: 기출문제는 항상 옳다.



신주용(오르비 정시, 논술팀) 지음  
오르비 아이디 넵툼.  
서울대학교 미학과 재학  
2015 논술실록 시리즈 著



#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 목차: Table of Contents

### Part 0. [오해편] 들어가며

- <1>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 발문 변형에 대한 모든 오해
- <2>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자료집 같이 읽기
- <3> 오해편을 마무리하며.

### Part 1. [이해편] 유형 이해하기

- <1> 대응 기반 비교
- <2> 대응 기반 비교의 확장
- <3> '+ 자신의 견해'

### Part 2. [구조편] 유형 파헤치기

- <1>  $P \rightarrow Q$ , 제시문의 논리 구조
- <2> 변형 발문에 대한 답안 작성의 절대 구조
- <3> 비공개 (1번 제시문의 절대 PATTERN)

### Part 3. [실전편] 유형 적용 모의고사

- <1> 실전 모의고사 1회 + 해제 + 예시 답안
- <2> 실전 모의고사 2회 + 해제 + 예시 답안
- <3> 실전 모의고사 3회 + 해제 + 예시 답안
- <4> 실전 모의고사 4회 + 해제 + 예시 답안
- <5> 실전 모의고사 5회 + 해제 + 예시 답안
- <6> 실전 모의고사 6회 + 해제 + 예시 답안
- <7> 실전 모의고사 7회 + 해제 + 예시 답안
- <8> 실전 모의고사 8회 + 해제 + 예시 답안
- <9> 실전 모의고사 9회 + 해제 + 예시 답안

## Part 0. [오해편]

# 들어가며

- <1>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 발문 변형에 대한 모든 오해
- <2>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자료집 같이 읽기

## <1>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 발문 변형에 대한 모든 오해 : 신유형?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한다. 조금이라도 올해 고려대학교 인문 논술을 준비하려고 한 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부담감은 아마도 발문의 변형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자료를 보는 학생들 중에는 지금껏 고려대학교 논술을 준비해온 사람도, 그리고 한번도 고려대학교 논술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읽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라면 처음 이번 모의문항을 마주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경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심경이 아니었을까?

“이게 뭐지…….”  
“비교 어디갔지 비교?”

다시 솔직히 말한다. 이번 고려대학교 논술이 출제되고 나서 학생들의 머릿속은 복잡했고, 논술을 이야기하는 사이비는 더더욱 많아졌다. 누군가는 배경지식을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기존의 기출문항이 무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공통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신유형”

그렇다. 신유형이다. 분명 해당 문항의 발문의 형태만 놓고 보자면 지금까지 오르기 논술팀에서 이야기했던 고려대학교의 기존의 유형, 대응적 비교(혹은 대응 기반 비교)에 전혀 맞지 않았다. 제시문의 구성도 기존의 것과 전혀 달랐다. 물론 한번도 제대로 고려대학교 논술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이 자료를 읽을 지도 모른다. 그런 학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료를 접하려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 학생들한테 말한다.



어떤가?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문제를 한번도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처음 발문을 보면 뻔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걸 어느 정도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본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발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많은 사람들이 ‘배경지식’이나 ‘기존 기출문제 무용론’을 펴고 신유형을 부르짖은 것이 전혀 근거 없는 헛소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다시금 기출을 말하려 한다. 정확하게는,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출만을 강조할 것이다. 왜 그럴까? 여기서 나는 이런 주장을 펴려고 하기 때문이다.

### “이번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은 기존의 대응 기반 비교 유형의 **창조적 변형**이다.”

주장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결론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저 주장이 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들이밀고자 한다. 바로, 고려대학교 논술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입장이다. 나름대로 논술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라도 해당 학교 입학처의 출제 의도와 해설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반이다. 어느 학교의 논술시험을 응시하건 마찬가지이지만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아야만 한다.

그렇지만, 읽어보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학교 입학처의 해설은 학생들에게 모호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입학처의 말이 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히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며, 간혹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캐치하는 학생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래서 어찌라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한다. 이러서는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기껏 입학처의 자료를 읽은 의미도 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입학처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함께 읽어보기로 한다. 입학처의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전부를 꼼꼼히 함께 읽으면서 ‘그래서 어찌라는 건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과연 입학처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바라는가?

## <2>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자료집 같이 읽기 : 2015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은 기존 문항의 ‘창조적 변형’이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고려대학교에서 친 모의 논술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것이다. 실제 시험에서 모의 논술처럼 낼지 아니면 그냥 기존의 유형처럼 낼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나는 결국 기존의 유형과 이번 유형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입장에서 이 공부와 저 공부랑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모의 문항의 유형은 기존 유형의 ‘창조적 변형’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또한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본 모든 모의 논술과 실제 시험이 한번도 벗어나는 식으로 출제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고려대학교의 이번 모의 논술 자료집을 읽기에 앞서 하나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기존의 논술 출제 양상, 즉 ‘대응 기반 비교’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출제 유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번 모의 문항이 결국에는 ‘같은 본질’의 문항을 ‘형태 변형’하여 냈음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르비 논술실록 시리즈에서 이러한 대응적 비교(대응 기반 비교) 문항을 고려대학교의 전형적인 문항으로서 다룬 바 있다. 즉, 대응적 비교에 대해 기존 책에서 소개한 수준까지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부교재 시리즈 **Part 0. [오해편]**에서는 대응적 비교에 대한 설명을 과감히 뛰어 넘고 모의 논술 자료집을 함께 바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논술실록 시리즈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기존의 고려대학교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아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고 보니 너무 걱정할 것은 없다.

한 번도 대응적 비교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조금 문제가 되겠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라도 일단 아래 과정을 먼저 함께 따라오기를 권한다. 우선 이 내용을 피상적으로라도 읽고 난 뒤에 기존의 기출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이 설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함께 읽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일단 각 제시문의 내용 정리가 이루어지는 부분과 같은 ‘내용 측면’의 서술은 여기서는 과감히 넘어간다. 자료를 읽고 나서 스스로 풀어볼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대학교에서 출제되는 수리논술 문항에 대한 자료집의 내용 역시 과감히 넘어가기로 한다. 수리논술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출제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함께 읽었다고 하여 다시 읽을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풀어본 뒤에 반드시 해당 자료의 전문을 다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 해설 일부 발췌]

- 본 논술자료집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원 자료 URL] :

[http://oku.korea.ac.kr/admissions/bbs/bbsView.oku?bbs\\_type=m6.m4&bbs\\_seq=1505&search\\_type=&search\\_keyword=&page\\_num=1&facebook=](http://oku.korea.ac.kr/admissions/bbs/bbsView.oku?bbs_type=m6.m4&bbs_seq=1505&search_type=&search_keyword=&page_num=1&facebook=)

## 1. 출제 의도와 문제 해설 (인문계)

### 1. 201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의 기본방향

2007학년도 입시부터 시작한 ‘통합형 논술’을 통해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다.

첫째, 수험생들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후 본교의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본교는 대학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학능력 중 논술고사를 통해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① 주어진 글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 ②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능력
- ③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 ④ 인간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수리적 사고 능력

둘째,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시험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신 성적의 학교별 격차와 수능시험 성적의 변별력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내신 성적이나 수능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없거나 정확히 평가되지 않는 수학능력이 있을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논술고사는 이런 현실 상황에 대한 보완과 보정의 역할을 한다.

2015학년도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이런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논술고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상기한 수학능력 중 ①~③의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논술’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하려는 요소에 약간의 변화를 피하려 한다.

## [넵툰's comment]

- ➔ 주목해야 할 부분이 등장했다. 앞서 나와있는 네 가지 능력 가운데 언어논술을 위해 필요한 '수학능력'은 1~3이다. 평가하려는 중점적인 요소가 달라졌다는 것이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이다. 일단 조금 더 읽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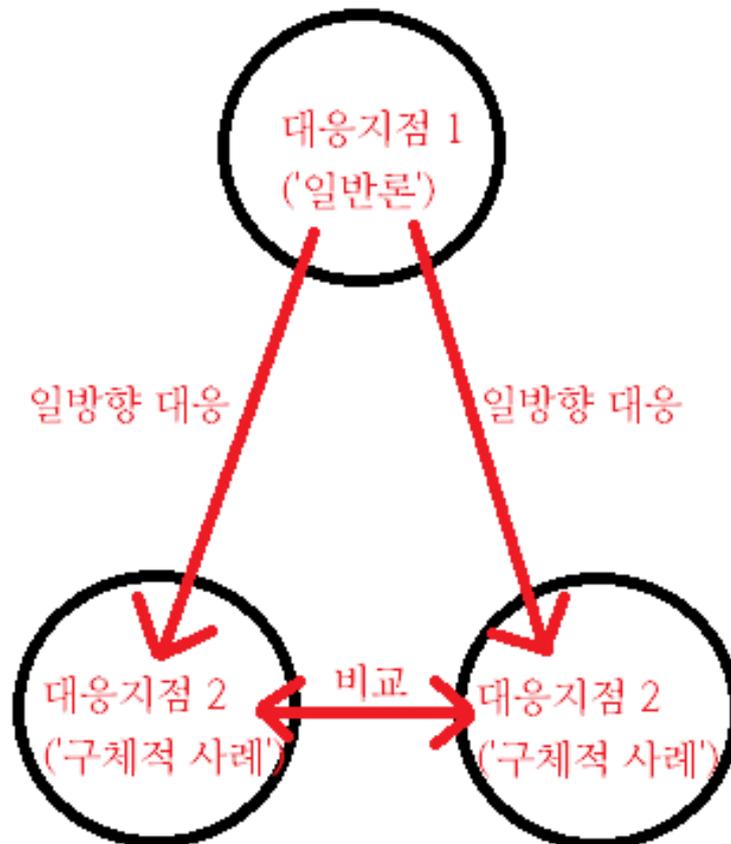
지난 몇 해 동안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의 '언어논술' 부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3~4개의 글을 수험생에게 제시하고 이것들 간의 논리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수험생들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주어진 글들 간의 관계를 출제자가 의도한대로 정확히 파악한 후, 주어진 논제에 따라 자신의 글을 작성하도록 요구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상기한 대학 수학능력 중 ①과 ②의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③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조점을 두었다.

## [넵툰's comment]

- ➔ 일단 고려대학교 자료집에서는 기존에 출제했던 유형인 '대응적 비교' 유형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한 능력들을 소개한다. 글의 분석과 이해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그것이다.
- ➔ 먼저 글의 분석과 이해 능력은 기존 출제 유형의 [전반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대응적 비교 유형은 알다시피 '기준 제시문' (1)과 대응의 대상이 되는 대상 제시문 (2), (3)의 세 제시문으로 이루어진다. 제시문 (1)은 어떤 '주제어'에 대한 일관적인 논지를 'p->q' 구조에 맞게 펼쳐 보여주는 것이다. 학생은 문제에서 주어진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제시문을 읽어 가면서 여기에 선행하는 논리적인 선행항이나 후행하는 후행항을 찾아나가야 한다.<sup>1</sup>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주제어를 직접 찾으라는 요구까지는 한 바 없으며 따라서 주어진 주제어와 동의어치환 되는 의미항들을 제시문에서 찾아 여기서 논리를 앞, 뒤로 확장해야 했다.
- ➔ 다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능력은 기존 출제 유형의 [후반부]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논술 자료집에서 이미 '비판, 강화, 절충'의 방식들을 제시하며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역시 본 시리즈에 이미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게 아니라도 고려대학교 논술자료집에 이미 소개된 바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sup>1</sup> 본 시리즈에 이미 소개된 바 있으니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제시문들은 출제자에 의해 반드시 의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교히 재단되어 있다. 우리는 따라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펼쳐져 나갈 수밖에 없는 제시문의 구성을 'p -> q'의 관계로 설명하며 이를 유형화하여 전달한 바 있다.

→ 정리하면 이렇다. [전반부]에서 주제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p->q’의 논리 구조를 우리는 기준이 되는 제시문 (1)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이 곧 제시문 (2), (3)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문들로 연결되었다. 발문을 보면 알겠지만 기존 문항의 [전반부]는 (2)와 (3)을 단순히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1의 관점에서 본 2)와 (1의 관점에서 본 3)을 비교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기준’ 제시문에 대한 치밀한 정리와, 기준 제시문과 두 사례 제시문간의 대응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요구하는 답을 제대로 작성할 수 없었다. 고려대학교에서 요구한 ‘글의 분석과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개별적 제시문에 대한 분석과 이를 넘어 제시문 간의 연결 관계를 밝히려는 것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대응적 비교(대응 기반 비교) 문항의 제시문 구성  
(출처: 경희대학교 논술실록 부교재 by. 넵툰)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전에 비해 ③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더 중점을 두는 형식을 취할 것이다. 그렇다고 ①과 ②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③의 능력은 ①과 ②의 능력에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넵툰's comment]

- 이제 우리는 기존에 중점을 두지 않았다는 ③의 능력의 정체를 살펴야만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세 번째 능력은 ‘단편적인 지식을 종합해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능력으로 보일지 모르겠다. 기존에 ‘항상’ 우리가 고려대학교 문항을 접근했던 것처럼 일반론을 가지는 기준 제시문과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대상 제시문의 연결관계를 밝히는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래 제시되는 학교의 출제 의도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한다. 기계적으로 ‘기존의 제시문 구성’의 틀에 맞게 읽어내기만 하여 답안을 ‘찍어내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 물론, ①과 ②의 능력을 도외시 하지 않겠다는 말도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함축이 숨어있다. 주어진 글의 분석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견해의 설득력 있는 전개. 이 두 능력은 여전히 도외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앞서 제시한 제시문의 구성도처럼 ‘직접적’으로 제시문간의 대응관계를 밝혀놓지는 않는다. 이것이 고려대학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번 고려대학교 문항 출제의 개요이다. 뭔가 아리송할 것이다. 기존에 요구하던 능력을 도외시하지 않으면서 ‘단편적 지식의 종합을 통한 새로운 관점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일까? 조금만 더 고려대학교의 힌트를 들어보기로 하자.

다음과 같은 비유가 중점 평가요소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의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수험생의 답을 평가하려 하였다.

## [넵툰's comment]

- 굉장히 친절한 고려대학교 입학처다. 굳이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비유까지 들어주시는 것은 전례가 없는 드문 일이다. 이전의 고려대학교 논술고사에서의 제시문을 교수님들께서는 ‘요리’라고 비유하셨다. 만들어진 요리가 곧 기존의 제시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뒤이은 설명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 각 요리에 들어간 재료들은 무엇인가?
-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되었는가?
- 각 재료들이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에서 담당하는 맛은 어떤 것인가?
- 각 재료들이 다른 재료들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 상에 차려진 전체 요리는 과연 어떤 것인가?
- 그 요리에 대해 수험생은 어떤 평을 내리고 있는가?

## [넵툰's comment]

- 기존 기출문항들의 요구는 이렇게 비유되었다. ‘요리’에 들어간 재료는 무엇이며 이것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 그리고 이 재료들의 역할과 서로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한 전체 요리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견해는 어떠한지.
- 대응 기반 비교 문항의 풀이를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요리’에 비유되는 제시문들에 는 분명히 ‘재료’에 해당하는 것들이 ‘p->q의 논리 구조’에 맞게 섞여있었다. 우리가 이미 시리즈에서 ‘p->q의 논리 구조’를 정리한 바 있지만, 이는 재료들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양상 그 자체였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렇다. 기존에 출제되던 대응 기반 비교 문항에서 ‘기준 제시문’은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를 ‘짬짜면’에 비유한다면, 각 2, 3 제시문은 각각 짬뽕, 짜장면의 재료와 구성과 같은 구체적인 양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짬뽕과 짜장면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들의 배합, 그리고 이로써 얻어지는 전체의 맛을 놓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야 했다. (나는 짬뽕이 더 좋아. 혹은 나는 짜장면이 더 좋아. 혹은 짜장면에 짬뽕 국물을 먹는 걸로 절충하자 등등…….) 이 정도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요리 대신 수험생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재료들을 제공받는다. 수험생은 이 재료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요리를 만들고, 평가자는 그 요리의 맛을 평가한다. 다시 말하면, 2015학년도 논술고사의 출제진은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논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 [넵툰's comment]

- 그런데 이번 모의 문항을 교수님들은 이렇게 비유했다.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수험생들은 이걸 가지고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역시 조금 더 구체적인 교수님들의 예시가 이어지니 이를 자세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렇게 생각해보자. 기존의 문제는 ‘완성된 요리’를 하나 주고 두 제시문에 한 요리를 구성하는 두 메인 ‘재료의 구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재료의 구성에서 자신의 견해를 찾을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문항은 어떨까? 재료를 제공받고 요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눈치가 빠르다면, 여기서 내가 왜 이번 모의 문항이 기존 문항의 ‘창조적 변형’일 뿐이라고 하는 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뒤이은 예시를 마저 읽어보자.

-제공된 재료들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 제공된 재료들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가?
- 선택한 재료들을 어떤 비율로 배합하였는가?
- 요리를 어떤 식으로 상에 차려 내놓았는가?
- 요리가 남의 것과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 요리가 정말 맛있는가?
-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넵툰's comment]

- ➔ 한 마디로 이렇다. 이번 모의 문항에서 제시된 두 제시문은 재료이다. 그렇다고 아주 대책 없이 '재료'만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 재료와 함께 '배합 비율'이 제공되었다. 이는 역시 기존의 기출문항과 마찬가지로 'p->q의 논리 구조'로 제시되었다.
- ➔ 이렇게 우리는 재료와 재료의 대략적 구성을 제공받았다. 이제 학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자. 교수는 우리에게 모두 같은 재료를 제공했다. 그리고 '한 상 요리'를 차려주기를 바란다. 즉, 재료를 '만들어 내는 능력', 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 ➔ 이를 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특급 요리사의 일품 요리와 이를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배합을 마주한 바 있다. 이제 우리가 일품 요리를 만들어야 한다. 잠깐. 우리는 일품 요리를 만들 것을 요구 받았다고 했다. 일품 요리가 한번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던가? 일품 요리는 우리에게 이미 몇 년 간 제공된 바 있다. 양질의 재료들과 이들의 배합 비율까지가 낱알이 공개되었다.
- ➔ 이제 감이 좀 오는가? 이러니 이번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이 기존의 기출 문항과 다른 신유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허망한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기출문제 풀이를 뒤집은 사고과정을 요구한다. 앞서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이 과정의 역(逆)이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를 여실히 뒷받침한다.
- ➔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야 할 점은 따라서 이렇다. 1번 제시문의 일품 요리에 들어있는 재료를 기계적으로 찾아 2, 3 제시문으로 가던 기존의 기출 문항을 뒤집어라. 답은 이미 나왔다. 2, 3번 제시문을 가지고, 1번 제시문을 만들어라. 본질은 이것이다. 명심하라. 기출은 절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다. 기출 문항을 공부하는 것은 여전히 고려대학교로 가는 가장 확실한 Royal road이다.
- ➔ 이하 수리논술에 관한 내용이지만 수리논술의 경우 출제 경향이 달라진 바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 <3> 오해편을 마무리하며.

: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는 알고 공부합니다.

올해 저는 두 번의 무료 특강을 했습니다. 한번은 물량공급님과, 또 한번은 Hwan(정도환)님과 했었죠. 물량공급님과 무료 특강을 했던 시기에는 고려대학교에서 구체적인 이런 해설을 발표하지 않았던 때였고, 그 후에 정도환님과 무료 특강을 했을 때에는 이미 고려대학교에서 논술 자료집을 발표한 이후였습니다. 저는 물량공급님과 무료 특강을 할 당시에도 지금까지 제가 이 부교재에 담은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오고서 제가 생각한 내용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두 번 모두 와주신 분도 계신데요. 그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난히도 이번 고려대학교 모의 문항을 강조해서 설명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무료 특강에 와주신 분들에게 이번 고려대학교 문항의 본질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만, 사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만 좀 더 빠르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비교 우위가 분명히 생기리라.”**

첫 번째 무료특강을 할 당시만해도 이 생각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생각의 무게는 ‘좀 더 빠르게’에 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이 문항에 대한 자료집을 내놓을 것임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고려대학교는 Y모 대학과는 다르게 자료가 꽤나 친절한 편이어서 힌트를 굉장히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이 발표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혹은 학원가에서 발 빠르게 반응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무료특강을 할 때, 그러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자료집을 이미 내놓은 시점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독학하는 학생들은 자료집을 받았지만 여전히 학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아니 정확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파악하는 한 학원들에서도 특별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이미 이런 내용을 했을 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원가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제가 할 수 있는 이번 기출

문항 대비의 서문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제가 만드는 모든 자료들을 곧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반대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다른 분의 수업을 듣는 분이 제가 만든 모든 자료를 뽑아먹으면 저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는 말이 분명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건 저도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제가 그럼에도 일부나마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공부가 아니라 노동이거든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노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논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평가한다고 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헛잡질 하고 있는 것은 간접적인 능력을 키워줄지는 모르나, 일부 일초가 시급한 학생들에게 노가다를 뛰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를 읽고 계신 여러분. 부디 쓸데없는 짓에 힘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험생은 논술이 아니라도 할 일, 신경 써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기적인 생각을 뒤로하고 이런 내용을 업로드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섭니다. 한두 달 전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경희대학교 논술실록 부교재편'에서도 그랬듯이 뒤이은 자료까지 모두를 업로드 하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책임한 약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

다만 뒤이은 자료들은 결국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부연이고 첨언이고 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어떤 내용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배려해야 하는 제 입장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조금 쓸데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 조금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제 수능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가고, 이 시간도 곧 지나갑니다. 고려대학교 논술은 애꿎게도 수능 후 논술전형 가운데 상당히 늦은 편에 속하죠. 어찌겠습니까. 입시에서 수험생은 언제나 '을'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스스로 을이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정신은 또렷이. 판단은 냉철히.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